시론

봄꽃은 고운데…

미 영 순
〈中 혹룡강대 객원교수〉

눈이 신통치 않아 내 집 마당을 걸을 때도 땅만 보고 걷느라 키 훌쩍한 목련이 다 피어나도록 그걸 올려다 볼 줄 몰랐다. 나야말로 'I aM a Fool'이다. 전국이 F학점을 받았노라고 저마다 투덜대는 세상을 맞았다. 이 20세기의 끝년에.

날마다 기업들 도산 실업자 쏟아져 나오고

날이면 날마다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쏟아져나오며 60년대형 범죄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도 자연은 제 질서대로 목련을, 개나리를, 벚꽃을 눈이 부시도록 피워낸다. 보이는 소식, 들리는 소문마다 아무리 어둑해도 해 바른 곳 흐드러진 꽃을 바라보는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있다.



이시아의 4용중 가장 철부지 아기 용(龍)의 공중제비, 우쭐 으쓱거리더니만 깡 뭐시깽이 영감이 와서 태상대통령 각하처럼 설치고 다녔다. 우스개 소리로 아이가 거짓말을 잘하면 커서 정치를 하면 된다고 하더니 우리네 정치꾼들의 헛소리 수준은 아마도 세계 1급인듯. 우리 정부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입가진 이마다 "에헤… 존심 상한다, 존심 상해"하면서 지낸 두서너 달. 지금 윤중로에는 흐드러진 꽃만큼이나 쓰레기가 흐드러졌다. 그 정치꾼에 그 백성? 찰떡궁합이다.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새삼스레 궁금할 건 없지만 그래도 국민인지라 뉴스라는 걸 볼라치면, 정치혁을 하는 탓인지 혼자 낄낄거릴 때가 있다. 여당만 십수년 한 사람, 아직도 입버릇대로 "우리 여당 아니 야당이…." 반세기 야당살이에 악쓰기가 몸에 배어버린 사람, 때 안가리고 악부터 쓰고 본다. 권력중독 증세가 심각한 사람, 헛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 옥석을 가릴 줄 모르는 국민, 노랗게 질려버린 개나리가 참으로 샛노랗기도 하다.

벚꽃이 지고 또 라일락 아카시아가 피고 질 때쯤 우리는 선거라는 걸 하기로 되어 있다. 나방 정치꾼들이 공천이라는 불빛을 찾아 이리로 퍼덕퍼덕, 저리로 퍼덕퍼덕, 예로부터 죽 그러했듯이. 정치철학·신조, 의리, 교과서 안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단어에 마음이 쓰인다면 정치가로는 싹수가 노란 사람이다. 집성촌도 쿠바의 하바나도 아닌, 자유민주주의로 빛나는 대도시에서 98%의 순도높은 지지율을 보이는 후삼국시대에 어찌 아니 그러랴. 부나비 정치꾼들의 한결같이 눈물겨운 충정… 국가와 민족을 위해… 아카시아 향기보다 훨씬 더 달콤하다.

봄꽃이 고우니 새소리 맑다. 휘파람새라던가, 내 귀에는 "sweet sweet"으로 들리는 그 휘파람 소리에 귀기울이다 엉뚱하게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성어가 생각났다. 원숭이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씩 주마고 했더니 화를 발칵 내더란다. 살살 어르면서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씩 주겠다고 했더니 좋아라고 날뛰었다는 이야기. 거짓말에 터무니가 없을수록 유권자의 환호가 드높으니 눈물을 삼키면서라도 거짓말을 할밖에. 그때 그때의 상황에 가장 알맞는 거짓말을 제일 태연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제일가는 정치가일 수 있는 곳, 나에게는 아니지만 그들에겐 틀림없이 "우리나라 좋은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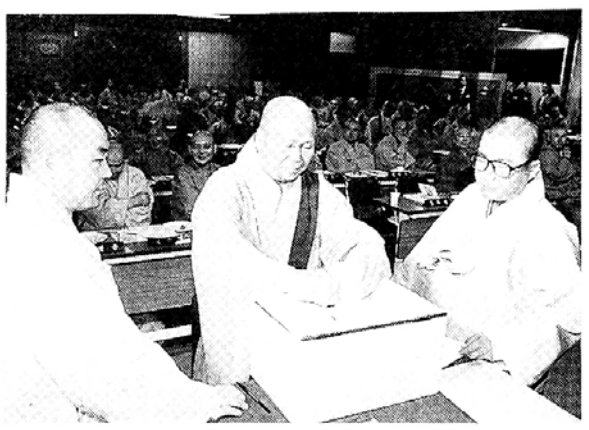
실업자 사태가 나자 거짓말쟁이 정치꾼에 환호하던 사람들이 악을 써댄다. "국회에는 고용조정도 없나?" "무노동 무임금, 국회에도 적용하라!" 이 꽃빛깔 고운 눈부신 봄에 휘파람새 외침은 sweet sweet, 예로부터 그러하듯 해맑기도 하다.

조삼모사 정치인들 제정신 차려야 한다

햇빛 찬란한 이런 봄날엔 '사월의 노래'를 흥얼거린다.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질 읽노라…" 거기에 꼭 이렇게 쓰여있는 것만 같다. 사람들이 속을만큼 실컷 속고나면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을 구별하게 될 테고, 뽑을 때 잘 뽑게 될 거라고. 그리고 어느 볼볕 따사로운 훗날, 잘못 뽑아 놓고 나중에 가서 '땅을 치고 발을 굴러 울분했던 날을' 웃으면서 기억하게 될 거라고. 그때도 지금처럼 샛노란 개나리가 봉긋봉긋, 연분홍 벚꽃이 하늘하늘 봄을 축복할 거라고.

열린마당

본사주지 직선



◇96년 11월 실시된 제 11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선출장면.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를 시작으로 올해 조계종은 불국사 등 9개 사찰의 주지를 새로 뽑는다. 동화사는 주지추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재적승려들의 직접선거를 10일 치렀다. 임명제에서 95년 제정된 산중총회법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한 경선을 통해 산중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이점이 있다는 의견과 자칫 불화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본사주지 직선'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직선제 갈마의 전통 벗어나"

철우스님 〈영산율원장, 계단위원〉



율장에는 상좌비구 중좌비구 하좌비구의 구분을 두고, 항시 상좌를 중심으로 갈마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갈마란 승가의 행사집행이나 결정 혹은 결의를 말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따르는 것이 불문율이다.

갈마는 단백갈마(單白갈磨), 백이갈마(白二갈磨), 백사갈마(白四갈磨)의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제집사인(諸執事人, 주지 등의 소임자) 등의 선출 때는 백이갈마를 행한다. 결의문 형식의 백(白, 제안문)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1회의 찬성·반대를 묻고 이의가 없으면 성립하는 것이다. 백사갈마는 백에 대해 세 번 거듭하여 찬·부를 묻는다. 비구계의 수계가 이에 속했다.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소임자의 결정이 비구의 수계보다 큰 사안이 아니었나 보다. 다만 〈사분율〉에 "소임을 보는 비구를 비방하면 바일제이니라"며 소임자에 대한 비방을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지 직선은 갈마의 전통을 벗어난 것이다. 헌행의 선거제도는 대단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로 보인다. 그러나 불화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불가에서는 파화합(破和合)을 가장 엄격히 다스린다. 율장의 정신에 따른다면 당연히 대중들의 화합에 의한 추대가 가장 바람직하다.

"역량있는 스님 선출등 장점"

청화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교구본사 주지 직선제가 개혁종단의 상징인 만큼 정착될 수 있도록 사부대중이 화합해야 한다. 어떤 제도이든 시행단계에서 착오가 있기 마련이다. 이는 정착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주지 직선제는 특정인의 전횡을 근절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중의 화합을 위한 적절한 조치이다. 문중의 모든 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여법한 절차를 걸쳐 행정력과 지도력을 갖춘 주지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민주정신에 입각해 종도들의 참여의 폭을 넓힌 것이다. 게다가 추대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방장스님이 있는 곳은 방장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특히 앞으로는 본사주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찰종무행정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등도 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의 각종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스님을 경선을 통해 선출한다는 것은 언젠가 교계가 받아들여야 할 제도이다.

사부대중은 현재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사장시키려 하지 말고 좋은 것은 수용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여 계승해 나가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법의 논리하에 승가의 화합이 이뤄졌으면 한다.

"세속법 근거 과열·혼탁 우려"

문수스님 〈중앙승가대 학생회장〉



현대사회에서 종교지도자는 신성하여야 한다. 종교를 믿는 신도로부터 존경과 경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무시한 현행 종법상 선거를 통해 본사 주지 소임자를 선출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리 승가는 승가 나름대로 전통적인 방식이 내려오고 있다. 총림의 임회나 산중공의(대중공사)가 그것인데, 이는 누가 보아도 합리적이고 큰 무리가 없는 선출 방식이다. 대중의 공의를 거쳐 선출형식을 띤 만장일치 추대라는 점에서 누구 하나 이견이 없고, 또한 승가의 화합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선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고유의 전통 선출 방식을 멀리하고 일반 사회 선거법에 따라 문중을 따지고 지연에 얽매이는 등 갖가지 인연으로 얽히고 설켜 선거를 한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불보듯 뻔히 짐작할 수 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런 선거는 아니함만 못하다.

그러나 굳이 산중공의를 거쳐서 추대된 단일 후보를 통과의례 정도로 해서 선거를 한다면 그나마 일반 사회 방식의 선거에서 오는 폐해를 줄일 수 있어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중화합 추대형식 바람직"

최동원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일반사회에서 행해지는 방식과 똑같은 직선제 형식의 주지선거는 한사람의 신도로서 바라볼 때 그리 환영할만 하지는 않다.

직선제보다는 질집안의 특성상 각 문중별로 중진스님들이 후보를 추대하고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여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력과 지도력을 두루 갖춘 후보를 주지직에 임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한 가운데서 추대된 스님에게 적정한 임기를 주고 그 안에서 제대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이끌어가는 종교적 절차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진스님들을 위해서도 직선제보다는 추대형식의 종교적 절차를 통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도 내부적으로도 좋을 듯 싶다.

일반 사회의 선거속에서 후보들이 서로 비방하는 모습을 지겹게 접한 대다수의 불자들은 자칫 질집안 선거에서도 그러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물론 일부에서는 주지 직선제를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것이라 보는 견해도 충분히 이해는 한다. 하지만 종교는 일반 사회와는 철저히 달라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화가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교에 걸고 있는 기대감과 부합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떻게 뽑나

산중총회 선출 총무원장 임명
후보 2인이상 무기명비밀투표

조계종 종헌 제91조 2항은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은 종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임명한다"고 교구본사 주지 선출 과정을 적시하고 있다.

단 교구본사중 총림에 해당하는 본사는 종헌 제106조에 의거, 본사주지를 방장이 추천하고 결격사유가 없을 때 총무원장이 지체없이 임명하도록 정해져 있다.

본사주지 추천과 관련한 사항을 정한 법은 '산중총회법'이다. 1995년 11월에 제정, 12월 4일자로 공포된 산중총회법 제7조 1항은 "총무원에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 고유의 방식으로 하되,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산중총회법 제4조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을 △비구계 수지후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입멸후 1년을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총무원 △교구 관할 말사주지 △비구계 수지 후 5년을 경과하고 2년이상 당해 교구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의 피선자격에 관해서 지방종정법 제8조 2항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 3급 이상의 승려"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종정법은 이밖에도 "본사주지의 임기는 4년(8조3항), 유고시에는 부주지나 총무국장 등 본사의 종무기구에 규정된 순서대로 그 권한을 대행(9조), 본사주지가 궐위됐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열어 그 후임자를 정한다(10조1항)" 등의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佛紀 2542年(戊寅年)

奉 부처님오신날 축하 廣告 접수 祝

귀의 삼보하옵니다.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을 관심있게 지켜보아주시고
물심양면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사회,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이때, 부처님 말씀이 더욱더 소중함을 알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온누리에 부처님 법음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특집 신문을 아래와 같이 꾸미고저 합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어 「부처님오신날」을 더욱더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 래 ●

■ 내 용 : 부처님오신날 축하 광고
■ 규 격 : 종단급 가로 37cm×세로 17cm
가로 18cm×세로 15cm
본사급 가로 7cm×세로 13cm
말사급 가로 7cm×세로 6.5cm
※불교단체 및 업체는 위 구분중 선택
■ 접수내용 : 광고주명, 크기, 담당자연락처
■ 접수마감 : 98년 4월 20일
■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사 영업부
TEL (02)737-8881(대표), (02)732-1522(직통)
FAX (02)737-0697

현대불교신문사

화제의 새 책

"귀신의 병은 100% 낫는다."

구천에서 떠도는 영혼들을 기를 통해
저승길로 인도하는 연화심 보살의
영능력 세계!

영혼을 천도하는 연화심

김점기 지음



뚜렷한 병명 없이 아픈 사람들이나
신이 내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하나 대지 않고 치유하는
신통력을 지닌 연화심 보살

"기를 모으면 영혼을 부를 수가 있는데 빛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현생에서 지은 업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색이 다르게 나타나죠. 저승에 가지 못하고 떠도는 혼들을 사후세계로 보내주면 혼령이 붙어서 원인 모르는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씻은 듯이 낫게 됩니다."
-〈여성중앙〉-

신국판 240쪽/값6,000원

• 읽고 난 후 저자에게 문의하실 분은 전화주세요
• 서울 지장정사 02)651-3880 • 부산 보운사 051)523-5262

도서출판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4-5호 중앙B/D
전화 3474-3521(영업부) 팩스 3474-3524